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방안

계열업체와 농가가 윈윈할 수 있는 원년을 기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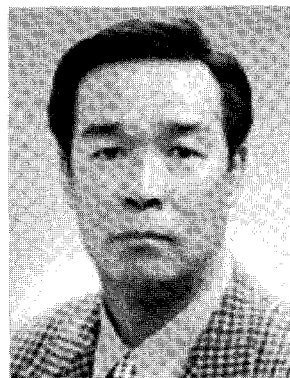
장 재 성 본회 대구경북지회 육계분과 위원장

지난 한 해의 악몽 같은 기억들을 뒤로하고
올유년 새해가 밝았다. 닭의 해를 맞아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닭을 소재로 각 언론매체가 쏟아내는 말잔치들이 육계 사육농가들의 상처 받은 농심에 더 큰 배신감을 안겨 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본다.

양계업계의 대 재앙(조류인플루엔자)을 맞아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그리고 정부 및 언론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양계농가와 우리나라 양계산업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은 가히 눈물겨웠다.

육계 사육 농가들은 계열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25~30원까지 사육비를 인하하여도 모든 것을 감내하며 농장 일을 접고 소비홍보, 시식회 등 그 추운 겨울 거리를 어깨띠를 메고 전단지 돌리며 헤메지 않았던가? 따뜻한 봄날은 오고 양계업계와 양계농가

정부 전 국민이 하나되어 어려움을 극복했고 지난 한 해 호경기를 맞이하였으나 정작 보상받아야 할 육계 사육농가는 깎인 사육비와 사육횟수 감소 등으로 생활고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고 최대의 수혜자는 계열업체들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배려를 육계사육농가를 위해 베풀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려운 지방 재정속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육계사육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아무리 지원해도 닭 한마리 사육 수수료는 200~250원 그것도 최정상적으로 사육해야 받을 수 있는 수

| 특집 ·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화 방안은 없는가!



입이다.

어찌 생물농사가 마음대로 되는가 여차하면 고생한 보람은 고사하고 보험회사 약관보다 더 애매한 계열사 자체에서 만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 사육서를 근거로 농가에 배상을 요구한다.

얼마나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계열사의 눈치만 보며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계약사육농가가 보는 계열화 사업과 계열업체는 어떠한가? 정부의 계열화 사업 지원과 함께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고, 시설현대화로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 공급과 가공 및 부가가치 높은 신상품개발 등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했고 농가는 정부의 시설자금 대출 등으로 생산기반을 자동화 및 선진화로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지금까지의 계열화 사업은 사육농가의 이름을 걸고 계열주체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첫째, 농장 사육에서 도계장까지 농가 사육권리 부분과 둘째, 도계에서부터 유통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 부분의 책임권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모두 후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전자는 농가이며 후자는 닭고기 가공 유통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짚어보자.

농가는 정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아 농장시설을 하

여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혜택(사료 영세율 적용, 연료비 면세혜택, 환경개선제 지원, 수매비 축, 방역, 소독, 등)과 권리를 후자에 위임하고 후자에 일방적인 사육 계약서에 의한 사육수수료를 받는다. 이것으로는 정부의 대출자금 상환은 제쳐두고 생활하기도 어렵다.

정당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각 계열사에서 사용되는 위탁사육 계약서를 살펴보자. 사육평가방식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된다. 양계농가들은 정산방법에서 투명성이 높은 절대평가 방식을 선호하며 대다수 계열업체에서 공히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양계협회육계분과위원회에서도 수년간 사육농가와 관련 학계의 도움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육계위탁사육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계열사에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두 가지 계약서 모두 각 항목 및 정산방법들은 계열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다. 사용자(갑)과 사육농가(을)의 책임 및 권리 부분에서 사육농가(을)의 책임 임무 부분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실천되고 있으나, 사용자(갑)의 책임 부분은 계약서상으로 불이행되어도 농가로서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이런 사례는 해표푸드 부도 사태에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양계협회 위탁사육 표준계약서는

갑의 책임부분을 구체화 했을 뿐이다. 이 얼마나 정당한 요구인가?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계열화 사업으로 가야할 길이라면 정부관계부처는 외형 성장에 급하여 돌아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챙기고 재 점검하여 양계산업의 주체인 사육자와 계열업체가 나란히 살 수 있는 수평적 관계의 계열화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거듭나기를 을유년 닭의해를 맞아 기대해 본다.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방안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계약문화 만들자

오 기 석 (주) 마니커 축산본부 이사

을유년 닭의 해가 밝으면서 양계업계는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꿈꾸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고 금년에는 닭의 기상처럼 양계업계에 모든 일이 잘 되길 기대해 본다.

육계산업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급격한 성장

을 거듭해 왔다.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육계업은 계열화사업을 도입하였고, 현재 70%에 달하는 농가들이 계열화사업에

